

2018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논술전형 기출문제

1. 인문사회계열, 간호학과(인문) 논술전형 문제

문항 1

(가)에 드러나는 바람직한 리더의 속성에 대해 (나)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가

적은 배로 대적을 당면하고 있는 황황한* 잘나건만 장군은 군사들을 아껴주는 마음이 어버이 같았다. 아침나절에 장군은 녹도 만호 송여종과 안골포 만호 우수를 부른다. 두 만호는 장군의 부름을 받고 황황히 벽파정으로 올라간다.

“소인들을 부르셨사옵니까?”

“자네들을 부른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오늘이 9월 아흐레 명절날이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군사들이 오죽이나 집 생각이 간절하겠나? 일전에 제주에서 가지고 온 소 다섯 필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잡아서 장수와 군사들을 호궤해* 먹이도록 하게.”

녹도 만호와 안골포 만호는 입이 딱 벌어진다.

“그처럼 처분을 내려 주시니 군사들은 꺾이나 좋아들 하겠습니까.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두 장수는 청령하고* 물러간 후 소 다섯 필을 잡아 국을 끓여 군사들을 대접한다. 벽파정 아래 걸린 가마솔 다섯에는 곰국이 펄펄 끓는다. 오래간만에 고깃국을 먹는 군사들의 즐거움은 무어라 형용할 수가 없다. 더욱이 군사들은 장군이 상중이라 아직까지도 소찬*만 자시는 것을 잘 알았다.

“사또께서는 소찬을 자시면서도 우리들에게는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시니 이러한 마음씨가 천하에 어디 또 있겠는가?”

“친아버진들 이렇게 생각이 미칠 수가 있는가?”

“열흘 전에 짐세란 놈이 제주도에서 소 다섯 필을 가지고 와서 바쳤을 때, 정자에 매어 두라 하시기에 무엇에 쓰려고 저러시나 했더니, 오늘 우리들을 먹이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

“참, 머리가 비상하시고 차근차근한 분이야! 사또께서는 벌써 열흘 전에 소를 보시고 오는 9월 아흐렛날을 생각해 두신 거야.”

수백 명의 군사들은 이렇게 떠들면서 고깃국을 훌훌 마신다. 장군은 벽파정 아래로 친히 내려가서, 그릇을 들고 서로들 먼저 받아먹으려고 떠들썩한 군사들의 모습을 미소를 머금어 바라보며 거닌다.

“소를 다섯 필이나 잡았으니 흠뻑들 먹게나. 기운을 흠뻑 길러서 우리 모두 적병을 대패시키세.”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하는 장군의 음성을 듣자 군사들은 더 한층 감동이 된다. 반년 동안 고기 한칼 먹이지 않고, 저 혼자만 주지육림* 속에 파묻혀 있다가 칠천 바다 단판싸움에서 패하여 죽은 원군을 생각하면서 군사들은 더 한 번 장군의 인품을 우러러본다.

- 박종화, 『임진왜란』

* 황황한 :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는

* 호쾌하다 :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하다

* 청령하다 : 명령을 주의 깊게 듣다

* 소찬 : 고기나 생선이 들어 있지 아니한 반찬

* 주지육림(酒池肉林) :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호사스러운 식사와 술잔치를 이르는 말

나

훌륭한 정치가는 무엇보다 인간의 쾌락과 고통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쾌락과 고통이야말로 인간의 행동과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지각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나아가 정치가에게는 신중함과 분별력 그리고 실천적 지혜도 요구된다.